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21 vol.227



CLASH [UN]LIMITED

Cartier





Objects connect.

문의. 02 3480 0104



DIOR

GEM DIOR COLLECTION
Yellow gold, diamonds and onyx.



WHAT MOVES YOU, MAKES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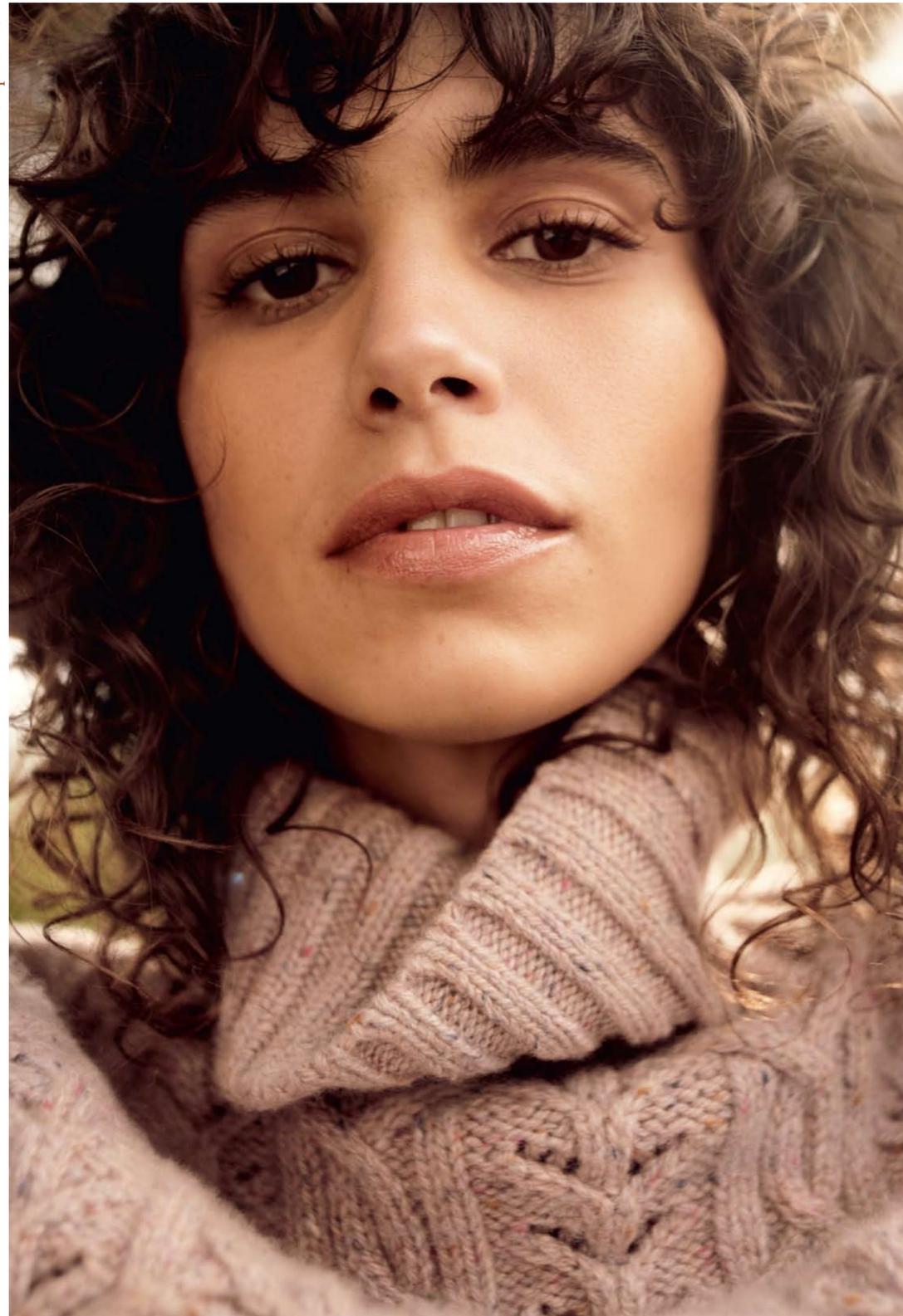
글에서 연기로, 세상을 표현하다.
영화배우 킬리언 머피와 그의 스타워커 울트라블랙.



MONTBLANC



loropiana.com



SOMEWHERE IN LORO PIANA





18

13

26



과장된 볼륨감과 강렬한 블랙, 오버사이즈 스타드 등으로 클래식 드 가르메를 재해석한 클래식 엔리미티드 컬렉션. 스타드의 곡선을 따라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광채를 발산하는데, 여기에 오닉스를 매력적인 비율로 더해 도발적인 매력을 뽐낸다. 표지 속 두 제품은 모두 18K 화이트 골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오닉스를 세팅한 클래식 엔리미티드 브레이슬릿과 클래식 엔리미티드 링이다. 문의 1566-7277



16

- 18 **LEGENDS & LANDMARKS** 팬데믹이라는 화제의 배경을 만나는 바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의 도쿄올림픽. 그래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답게 여전히 역사적인 장면도, 감동의 스토리도 많았다. 그런데 폐회식 때 차기 개최지인 파리를 소개하며 뜬 홍보 영상에 에펠탑이 보이자 문득 2024년 올림픽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이 절로 솟아났다. 일단 '무대 자체가 예술이다. 에펠탑 아래, 콩코드 광장,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의 명소를 비롯해 보르도, 낭트, 미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림피아관 겨냥한 건 아니지만, 도시마다 매력적인 하드웨어와 스포트 콘텐츠를 사뭇게 장착하고 나서고 있는 건 물론이다. 여행길이 막혀 있는 동안 눈을 사로잡을 만한 랜드마크들도 등장해 기대감을 더 부추긴다.
- 20 **CODE BLACK**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올블랙 워치6.
- 22 **AUTUMN ROSE** 햇살에 그을린 피부 위에서 그 어떤 칼라보다 빛을 발하는 로즈골드 주얼리.
- 24 **FALL INTO YOU**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옷장에서 자연스레 찾게 되는 소재 빅4.
- 25 **ON THE FIELD** 시원한 정돈과 호쾌한 티샷을 위한 프로페셔널 캐디백.
- 26 **BAG LADY** 심플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분위기로 돌아온 뉴 시즌, 뉴백.
- 34 **FULL BLOOM** 일렉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버튼(Sarah Burton)은 2021 F/W 시즌, 사대상을 고찰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치유의 힘을 지닌 물과 아네모네 꽃에 주목했다. 갖 피어난 꽃처럼 풍성하고 화려한 매력으로 우아하고 강한 여성상을 전하는 데 앵배서더 전지현이 함께했다.
- 36 **WHITE ACTS** 추위에 따라 골라 신는 재킷! 신뜻하고 근사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화이트 스니커즈.
- 37 **ETERNAL ELEGANCE** 우아함에 대한 여성의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로저 비비에 클래식, 새로운 백, 비브 쇼크로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변함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자극한다.
- 38 **JEWEL LOVER** 하이 주얼리의 아이덴티티를 담거나 재해석한 향수.
- 39 **RADIANCE TREATMENT** 피부 필수 기능을 재강화하고, 건강한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바닐라 플라놀라이의 유효 성분을 고스란히 담아낸 인티에이징 집중 스페셜 홈 스킨케어.
- 40 **STICK TO LIPS** 시즌이 바뀔 때 꼭 하나 사야 한다면 단연 새 컬러, 섀트 스킨으로 출시되는 립스틱이다.
- 41 **START THE GAME** 수십 년 넘게 영화 제작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럴드 워치.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게임 워치. 역사상 최초로 파 크라이 6 월드 게임에 등장하는 해럴드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워치를 소개한다.
- 42 **EDITOR'S PICK** 환절기로 저하된 피부 컨디션을 위한 스페셜 케어.

FEELS LIKE PRADA



Style 조선일보 Issue.227 October 2021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민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분해·재판 | 리은 인씨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ELSLIKEPRADA

PRADA.COM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한다. 한국에 론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독보적 존재감을 자랑하는 주얼리 브랜드 3. (위부터 시계 방향) **포말리토 린다나 브라이슬릿**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론칭한 이탈리아 럭셔리 하이 주얼리 포말리토, 우아하고 수려한 곡선을 자랑하는 브라이슬릿에는 총 2.67캐럿의 1백3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스타본 헬스퍼 라브 미 러브 미닉 크리스탈 헤이즈 라지 링** 런던 피인 주얼리 브랜드로 재작년 신인출발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 화이트 골드에 그린 아메이스트 크리스탈 헤이즈 원석과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0.37캐럿으로 이뤄진 링 1캐럿만인데, 문의 02-2231-1592 **부셀라티 밴드 링** 올 초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국내 첫 부티크를 오픈한 이탈리아 하이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셀라티의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밴드 링 컬렉션. 화이트와 옐로 골드에 패시트 루비 1.01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뤄져 있다. 3천7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포도그래퍼 빅채용 에디터 성장인 어시스턴트 배시연**

SEDUCTIVE APPEAL



THE REVIEW

이트 전문 미디어 'ART CHOSUN'아트조선과 대표 종합 편성 채널 'TV CHOSUN',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노블레스)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초 전시형 이트 쇼 **더리뷰**(THE REVIEW)가 10월 7일(목)부터 17일(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광화문)과 노블레스갤러리(성남동)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더리뷰**는 지난 2년간 '아트조선'과 (노블레스)에서 기사, 전시 등으로 리뷰하고 소개해 바 있는 작가 19인의 예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이트 쇼다. 미디어가 작품과 작가를 검증·영상화 전시 형태로 소개하고 기존 마켓형 이트 쇼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선하고 참신한 이트 마켓을 표방하고자 한다. 단순한 시각적 경험을 넘어 이트 전문 미디어가 영선한 국내 신인·중견 작가 20인의 작품에 응축된 그들의 예술혼을 느껴볼 수 있는 의미 깊은 전시가 될 듯하다.



이진우 작

정희송 작

INSIGHT

편집부가 영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티스트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MOOTH CURVE

일렉산더 맥퀸이 선보이는 클래식은 고루하지 않다.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아름다움,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자판, 그리고 하우스가 전하는 자유로운 펌크 정신이 강렬한 감정을 이끌어낸다. 커브 백 역시 클래식한 호보 스타일이 지닌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아이코닉한 X 자 하네스 디테일을 더해 독특한 하드웨어의 특징을 이어간다. 자석으로 여닫는 앞면의 이중 달리는 온전한 타원 형태를 이력 사용하기 편리하다. 포레스트 그린과 옥스블러드, 두 가지 시즈널 컬러로 선보인다. 1백89만원. 문의 02-6905-3472



Alexander McQueen



소녀, 가을 위를 걷다

시련한 발걸음, 빌라나 슈츠.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앙증맞은 장미 이빨리개를 다한 로즈 펀드자크 빌라나 슈츠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팡카린 벨트** 장갑과 시원스로운 리본 스타일로 상징되는 시그니처 빌라나 슈츠 1백7만원 **마유유**, 문의 02-3218-5320. **그로그래퍼** 램프 스킨으로 제작된 컷 디자인의 오픈 슈즈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도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어시스턴트 배시연**



미래형 클러치

건축물에서 영감을 받아 늘 구조적인 디자인과 일체-업 세대의 감성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보테가 벤테의 백. 이번 2021년 FW 시즌에는 실용 02 컬렉션에서 이트피스를 연상시키는 '스트럭처(Structure)' 클러치를 선보인다. 브랜드의 시그니처 인트레치아토를 사용했으며 담야 한쪽 모서리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부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기하학적 세이로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길로 드러나지 않는 지퍼 잠금장치를 사용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팔에 착 감기는 형태로 예지를 다한다. 블랙, 다크 모스, 미스틱 등 다양한 컬러로 출시할 예정이며 스몰과 미디엄 사이즈로 구성된다. 미디엄 4백16만원, 스몰 2백41만원. 문의 02-3438-7682



THINK TANK

순수하고 정교한 디자인, 섬세한 실루엣이 특징인 루이 까르띠에의 걸작, 탱크 워치가 1917년 처음 선보인 이후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섰다. 자로 잔듯 정직한 크기의 스퀘어 세이프로 현대적인 동시에 이방기르드적인 감성으로 존재감을 높인다. 이 클래식한 워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까르띠에에서는 선명한 컬러를 다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를 선보인다. 다이얼에 감물한 버건디 컬러의 레일 트랙을 깔았으며, 크라운에 비비드한 블루 컬러가 포인트인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매켜 세련된 감각을 부여했다. 언제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고 싶다면 탱크 루이 까르띠에에는 또 하나의 DNA를 탑재해보자. 1천7백30만원, 문의 1566-7277



BRILLIANT FANTASY

할렘 넘치고 유쾌한 에너지를 전하는 부세몬의 에-업 컬렉션. 매혹을 상징하는 블라디미르를 표현한 이 주얼리 링은 화이트 골드를 바탕으로 블랙 사파이어와 영롱한 차보라이트, 화려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더해 아름답고 감동적인 반짝임을 전한다. 6천만원대. 문의 02-772-3508



TINTED LIPS

핑크빛으로 울든 사랑스러운 입술.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비에도** **틴티드 컬러 립밤 #오르라** 크림 제형이 부드럽게 발려 피부다처럼 가볍게 밀착되며, 입술 본연의 질감을 살려 고급스러운 빛을 선사한다. 2.5g 6천7천원. 문의 02-3479-1688 **에르메스 로지 에르메스 로지 립 언택서 #로즈 데테** 입술 본연의 색에 생생하고 투명한 장미빛을 부여한다. 리즈베리 시드 오일과 참깨 오일 성분 입술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4g 9만원. 문의 02-310-5174 **샤넬 레 베뉴 헬스 글로우 립밤 언택스** 비티민 E 성분과 오망가 바터 성분이 영양을 공급하고 입술을 편안하게 감싸주며, 수분감 넘치는 피그먼트가 자연스러운 생기를 부여한다. 3g 4만5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버버리 뷰티 키세스 슈어 워터 로즈** 가벼운 젤 텍스처로 촉촉하게 발려 투명하고 선명하게 발색되는 라인 파-싱 립. 2g 4만5천원. 문의 080-580-0708 **포도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유이 어시스턴트 배시연**



탄력 재건 시간

피부에 중대한 인텐메이징 효능을 선사하는 셀룰라 퍼펙트 리프트 세럼. 보석 같은 셀룰라 에티브 아이리시 성분은 중심으로 난노로로루스 오올라타 추출물과 스톱하일루로이아 등 탄력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을 최적으로 배합한 에센스가 차원이 다른 피부 효과를 선사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30ml 5만2천원. 문의 1644-4490

EXHIBITION



자녀서 일남일경(2020-2021) Photo by SY Kq

이새 덕수궁에 살포시 내려앉은 가을을 색다르게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전시를 주목해보자.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문화재청과 손잡고 2012년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 네 번째 프로 젝트인데, 늘 기본 좋아지게 만드는 전시지만 올해는 야외의 햇살과 공기를 머금은 현대미술 전시 콘텐츠가 유난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덕수궁 야외 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덕 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은 유색남, 권해원, 이예승, 지니서 같은 현대미술가와 조각가(김기연, 송중상, 애-메이타(이애매), 식물학자(신혜우), 무형문화재(황수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9명이 참여했다. 부재에서 임시하듯 정원을 매개로 덕수궁의 역사를 돌아보 고 각자의 방식과 관점으로 열린 정원을 이루는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어낸다. 주변 풍경과 기 막히게 어우러지는 설치 작품부터 QR코드를 활용해 감상하는 작품 등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 다. 오는 11월 28일까지.



B23 로투스니커즈
1백30만원 디올.

인하우스 무브먼트
5200/2로
구동하는 오버사이즈
크로노그래프
에베레스트 리미티드
에디션 4차판원래
바세론 콘스탄틴.



유연 레퍼토리
7.00만원 디올.



캐시미어와 실크를 조합한 니트 톱 2백10만원 에르메스.



키로 스킨 100만
파우치 7.00만원
루이비통.

for him Selection

정제된 스타일로 근사하게 즐기는 컴포트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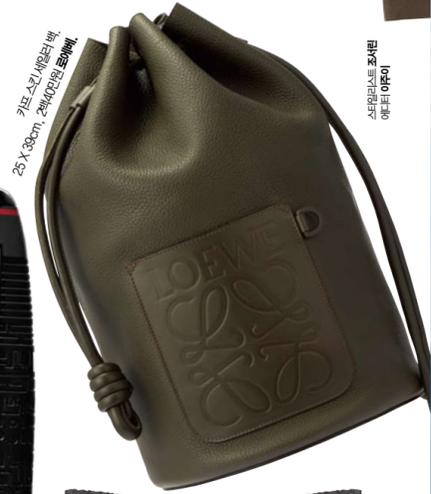
화이트 골드 저스트
앵글루 브라이슬릿
1천만원대 카르띠에.



안드로이드플래이 카메라 기능과
'S'렌 기능을 갖춘 갤럭시 Z 폴드 3
1백25만원 삼성전자.



비틀림의 투톤의 광
2백만원대 샤넬.



키트 스킨 세팅리본
25 X 38cm, 2백만원 루이비통.

소쉬르르르르르
에르메스



화이트 니트 스니커즈 거러미정
브루넬로 쿠치넬리.

마이 스타스네 그레이트 미스터 파텔리 수성펜 3백50만원 몽블랑.



그레이 배강리노
트라우저 53만원
이자벨마랑.



브라운과 머스타드 컬러를
배색한 카프 스킨 토트백
가격 미정 구찌.



렌트 케이스와
카드 케이스
31만원 MCM.

- 디올 02-3480-0104
- 에르메스 02-544-7722
- 루이비통 02-514-0652
- 루이비통 02-3432-1854
- 불가리 02-2056-0170
- 몽발랑 1670-4810
- 로아베 02-2056-2274
- 카르띠에 1566-7277
- 구찌 02-3452-1921
- MCM 02-540-1404
- 이자벨마랑 02-516-3737
- 삼성전자 02-2255-0114
- 바세론 콘스탄틴 02-3446-088
-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79-1804



Elegance is an attitude

Jung Woo-Sung
Jung Woo-Sung

LONGINES



The Longines
Master Collection

론진 부티크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부산본점 대전점 · 현대백화점 판교점 · AK플라자 수원점
롯데면세점 본점 월드타워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 · HDC신라면세점
www.longines.co.kr



크롬트 케이블 니트 97만원 로아베.



루즈 나팔루를 장식한 에르메스 시계로 마음을 사로잡아주세요. 1백70만원 에르메스.



백색과 골드 컬러를 조화시킨 스포츠가이머링 슈즈 1백11만원 구찌.



골드 아이웨어 50만원 지형사.



골드 아이웨어 50만원 지형사.

for her Selection

섬세한 니트와 부드러운 가죽으로 구현한 이지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캐시미어 블렌드 햇 92,900원 폴로 알프 로렌.



캐시미어 로안 스테드 라지 솔더백, 30 X 21cm, 3백90만원 발렌티노 가미베르나.



브라운 가죽 디테일을 다룬 벨트 22만원 롬상.



유니클로와 협업한 이베르노-핀-클러치 가미베르나 로아베 1백27만원 프라다.



프라다 러쉬 캐버딘 리-윌론 레이스업 스포츠 슈즈 1백27만원 프라다.



핑크 모헤어 스커트 1백70만원 로렌.



카프 스킨 그린 카드 지갑 37만원 모이나.

로아베 02-2056-2274 불가리 02-2056-0170 구찌 02-3452-1921 에르메스 02-542-6622 루이 비통 02-3432-1854 지형사 02-546-2790 폴로 알프 로렌 02-6004-022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펠로 02-525-2250 맨디 02-514-0652 발렌티노 가미베르나 02-2015-4653 롬상 02-513-2288 보테가 베네타 02-3438-7601 프라다 02-3218-5331 모이나 02-2254-4150

IGNITE YOUR DREAMS



SWAROVSKI



100년 만의 하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의 행보

Legends & Landmarks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복병을 만나는 바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의 도쿄올림픽. 그래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답게 여전히 역사적인 장면도, 감동 스토리도 많았다. 그런데 폐회식 때 차기 개최지인 파리를 소개하며 뜬 홍보 영상에 에펠탑이 보이자 문득 2024년 올림픽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마음이 절로 솟아났다. 모두가 바라지 않았듯 '윈증은 있고 마스크는 없는' 올림픽이 기대되기도 하거니와, 무려 1백 년 만에 하계 올림픽을 치르는 만큼 파리의 포부가 남다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일단 '무대 자체가 예술이다. 에펠탑 아래, 콩코드 광장, 베르사유 궁전 등 파리의 명소를 비롯해 보르도, 낭트, 마르세유 등 프랑스 곳곳에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림픽만 겨냥한 건 아니지만, 도시마다 매혹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 콘텐츠를 새롭게 장착하고 나서고 있는 건 물론이다. 여행길이 막혀 있는 동안 눈을 사로잡을 만한 랜드마크들도 등장해 기대감을 더 부추긴다.



모든 인간은 완전히 자연적인 생물로 삶을 시작하지만, 점차 돌이킬 수 없이 문화적 동물로 변한다. _앤렌 디사사야케

얼마 전 서울 이태원에 문을 연 한 매장은 프랑스 파리의 빈티지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과 오브제로 트렌드세터들 사이에서 화제를 뿌렸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파리를 본거지로 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스티에 드 빌라트(Astier de Villatte)의 서울 플래그십 매장이자, 일부러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을 택했다는 이 매장은 식기류를 비롯해 향수, 책, 가구, 그림 등으로 아름답게 채운 5층 공간을 둘러보면 느낄 수 있듯 몇 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 고요한 감성이 묻어난다. 특히 루프톱 카페에 앉으면 가구나 소품까지 영락없이 파리 감성임을 실감할 수 있다. 파리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한 뒤 벌써 몇 년째 가보지 못했다는 필자의 지인은 "아스티에 드 빌라트를 보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녀의 말인즉슨 원래는 파리를 그다지 그리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없던 향수병이 도질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그제 파라든 아니든, 우리에게만 그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쓰다니다고 타 문화를 경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자는 진짜배기 여행에 대한 갈증이 터 밀까지 차올라 있기 때문일 터다. 1세기 만의 하계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의 기운이 남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살아있는 건축의 전설이 설계한 마작 작품에 자리한 박서보의 단상화

팬데믹이 자구를 뒤흔든 지도 어언 2년. 하늘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여행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여러모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심지어 건강상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평소 같으면 세계 곳곳을 다니는 아티스트임에도 자신의 작품이 설치된 모습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현재 서울 소격동의 국제갤러리 K1에서 개인전(오는 10월 31일까지)을 진행하고 있는 단상화 거장 박서보에게도 별어린 일이다. 프랑스 남부인 프로방스 지역에서 열리는 자신의 뜻깊은 개인전을 몸소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파리 풍파두 센터, 런던 밀레니엄 돔, 더현대 서울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은퇴하기 전에 설계를 맡은 마지막 작품인 갤러리 공간의 개관전인데도 말이다. 엑상프로방스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끝을 모를 만큼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 샤토 라 코스트(Château la Coste) 내에 자리한 리처드 로저스 드로잉 갤러리에서 페로탕 갤러리와 협업으로 지난 8월 말부터 열리고 있는 박서보의 <묘법(Ecriture)> 전시(내달까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외팔보(cantilever)' 형식으로 지은 이 갤러리는 '중공'에 떠 있는(floating) 갤러리라 불린다. 거대한 비탈에 살짝 걸쳐져 있는 느낌이라



1 지난해를 기점으로 도쿄올림픽이 이어 3년 뒤인 2024년 프랑스 파리에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1백 년 만에 파리에선 다시 열리는 차기 올림픽에서 베르사유, 에펠탑 아래, 그림 필레 등 정경향 파리의 명소들이 강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보르도, 마르세유, 리옹 등 프랑스 내 다른 도시들, 그리고 서핑 같은 종류의 경우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타히티섬도 경기의 무대가 된다. ©Paris2024 사진 제공, 프랑스 관광청 2 프로방스 지역에 자리한 발다윈 아트 센터(자외아리엔 샤토 라 코스트) 내에 새로 들어선 리처드 로저스 드로잉 갤러리의 모습.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외팔보(cantilever) 형식으로 지었다. ©James Reeve 사진 제공, 샤토 라 코스트 3 리처드 로저스 드로잉 갤러리에서는 단상화 거장 박서보의 개인전이 개관전으로 열리고 있다(오는 연말까지). 천황의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오는 이 독특한 갤러리는 아틀란티아 태생의 영국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경이 은퇴 전 설계한 마지막 작품으로 남을 듯하다.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Photo by Stéphane Aboudaram ©WeAreContents 4 프로방스의 또 다른 도시 아를(Arles)에 새로 들어선 루마 아를 타워, 스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이끄는 살계 팀의 작품이다. ©Adrian-Dewerd



5 미술계 슈퍼 컬렉터로 케어링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한 프랑수아 피노의 개인 미술관이 지난봄 파리에서 선보였다. 옛 상업거래소 건물이 일련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레노베이션 작업을 통해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Photo by Vladimir Partalo 6 피노 컬렉션 개관전에서 전시장의 중심축을 이루는 원형의 로뎬드 홀에 전시된 우르스 피셔(Urs Fischer)의 작품 'Untitled'(2011). ©Urs Fischer Courtesy Galerie Eva Presenhuber, Zurich. Photo by Stelian Attenburger 7 피노 컬렉션 개관전 전시 작품으로, 라이언 건더의 에-메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한 쥐 설치 작품 '1... 1... 1...' (2019). ©Ryan Gander / ADAGP, Paris 2021 Courtesy Esther Schipper. Photo by Andrea Rossetti 8 피노 컬렉션 개관전 3전시실 모습. 샤리 레빈의 작품 '사라진 조각' 전시대 있다. ©Sherrie Levine Courtesy Sherrie Levine et Paula Cooper Gallery, New York. Photo by Aurélien Mole ※ 5, 6, 8 Bourse de Commerce - Pinault Collection ©Tadao Ando Architect & Associates, Ninoy et Marca Architects, Agence Pierre-Antoine Galier 9 풍노프 다리 인근에 재단창립 16년 만에 다시 문을 연 유서 깊은 백화점 사마리엔. 5성급 호텔, 갤러리, 스파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거듭났다. ©WeAreContents 10 사마리엔의 후면부는 일본 건축가 그룹 사나(SANAA)가 유리 파사드를 얹은 리블리 건물로, 현대성을 기미한 유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Takashi Homma ※ 9, 10 프랑스 관광청 제공



파리 도심 레알 지역의 역사적 기념물인 옛 상업거래소(Bourse de Commerce) 건물이다. 피노 명예 회장의 베니스 프로젝트를 도운 안도 다다오가 레노베이션 작업을 맡았는데, 지난봄 서막을 알리는 개관전 <Ouverture>와 더불어 대중에 공개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 세기 전의 시대를 아우르는 화려한 프랑스 건축양식과 안도 다다오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의 모미를 살린 미니멀한 설계 미학의 양상뿐만 아니라 다국적 작가들을 품은 컬렉션 자체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특히 미술관의 중심축인 원형 전시관 로뎬드 홀은 외부의 빛이 스며드는 유리 돔 천장과 콘크리트 실린더의 조화가 압권인데, 여기에 우르스 피셔의 왁스 조각 시리즈와 19세기 천장화의 대비가 대구를 이루는 듯하다.

파리를 들쭉거리게 한 두 공간의 주인공, 피노 컬렉션과 사마리엔

아담한 소도시로 이루어진 프로방스 지역이 어려웠던 수도인 파리가 팔황 끼고 유유자적 할 리 없다. 실제로 올 들어 파리의 도시 풍경에는 새롭고도 강력한 활력소가 더해졌다. 하나는 문화 예술계를 들쭉이 피노 컬렉션의 어마어마한 전시 공간이다.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과 더불어 럭셔리업계의 양대 산맥이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예술계 큰손이기도 한 프랑수아 피노 회장의 현대미술품 컬렉션을 모아놓은 파리의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피노는 현재 구찌, 생 로랑, 발렌시아가 등의 브랜드를 거느린 케어링 그룹의 창업주(아들인 프랑수아-앙리 피노 회장이 현재 케어링 그룹의 수장이다)로 베니스에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전시 공간을 두 곳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의 모국 수도에 미술관을 여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을 터, 그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온 컬렉션을 담아낸 그곳은 심지어



Code Black

탁월한 성능과 견고함,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올 블랙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IWC 피알런 워치 더블 크로노그래프 팀건 세라믹 하우스 특유의 현대적 디자인과 탁월한 메카니즘이 어우러진 아키텍처. 가벼운 티타늄과 단단한 세라믹의 장점을 결합한 신소재 세라믹으로 케이스 제작했으며, 2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스플릿 세컨즈 기능을 갖춘 더블 크로노그래프 오토매틱 와인딩 73420 칼리버로 구동한다. 컴플리케이션의 조화로운 밸런스 덕에 크로노그래프 워치임에도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블랙 라바 스트랩을 매치해 실용적으로 선보인다. 2천만원, 문의 1670-7363

오메가 시미스터 다이버 300 코-엑시엄 마스터 크로노미터 43.5MM 케이스와 푸시 버튼, 인덱스에 서 시가해늘까지 블랙 실라를 입힌 올 블랙 워치.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 칼리버 오메가 8806은 다이버 워치에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탁월한 항자성과 헬륨 가스 배출 밸브를 통해 안정적이고 장을 유지하고, 최대 55사과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충격으로부터 무브먼트를 보호해 높은 안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한다. 1천백만원대, 문의 02-310-1270

제너스 데티 인스티튜트 엘 프라페로 9004 오토매틱 칼리버가 시계장 3만천 최 정동하며, 0.01초 단위로 측정 기능을 정확성을 보다 높였다. 지름 45mm 티타늄 케이스에 스텔 세컨즈, 30분 카운터, 60초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으로 컴플리케이션을 풍부하게 채웠다. 라바 스트랩을 기본 장착했으며, 블랙 스트랩을 추가 제공한다. 2천백 81만원, 문의 02-3479-6191

워털로 클래식 쿼터 에어로퓨전 크로노그래프 블랙 매직 오픈워드 다이얼로 기계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는 피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매뉴팩처 HUB 1155 셀드 와인딩 스텔레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블랙 세라믹으로 빛아낸 지름 45mm 케이스에 크로노그래프에서 가장 실용적인 기능인 날짜창을 다뤘으며, 9시 방향에는 30분 카운터를 갖췄다. 2천2백만원대, 문의 02-777-9005

블가리 블가리 워치 지름 41mm의 매끈한 세라믹 베젤에 인크립티명한 더블 로고와 블랙 다이얼 워치형 매달 인덱스가 자랑인 아키텍처를 풍긴다. 오토매틱 와인딩 메카니즘 무브먼트로 구동하며, 수심 50m의 생활 방수 기능을 갖췄다. 유가적으로 연결해 유연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블랙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매치했다. 6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파타라이 샵어플 미라나 일라테 케논테르™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이 모델은 최대 39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오토매틱 기계식 칼리버 P.9010으로 구동한다. 지름 47mm 다이얼 워치 방향에는 날짜창을, 9시 방향에는 스텔 세컨즈를 올리고, 양카 블랙 충격 방지 장치와 2개의 베젤로 안정적이고 움직임을 구한다. 블랙 다이얼 워치 방향 물결진 슈퍼 루미노버를 입힌 아워 마크가 어둠 속에서도 높은 가독성을 발휘한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394

에디터 이지이

이스트베어

The new Volvo XC60

국내 최초 SKT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탑재된 더 스마트해진 볼보를 만나보세요.

The smartest ever

TMAP NUGU FLO



VOLVO

서울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서현 031 707 2266 분당 판교 031 706 5599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의정부 031 563 7000
 하남 031 795 0211 부천 032 716 6788 **경기** 구리 031 555 0070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순천 061 754 7200 대구 대구 053 768 5588 **인사** 서대구 053 572 5600 울산 052 268 0900
 경상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김해 055 338 8999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평안 051 759 1600 제주 064 712 3600

•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유튜브 youtube.com/volvocar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r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XC60 B5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900kg, 자동 8단 복합연비:9.5km/ℓ(도심연비:8.4km/ℓ, 고속도로연비:11.1km/ℓ) CO₂배출량:180g/km, 등급:4등급. ·XC60 B6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935kg, 자동 8단 복합연비:9.1km/ℓ(도심연비:8.1km/ℓ, 고속도로연비:10.7km/ℓ) CO₂배출량:189g/km, 등급:5등급. ·XC60 T8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2,155kg, 자동 8단 복합연비(플러그인하이브리드):휘발유 10.8km/ℓ, 전기 3.0km/kWh, 1회 충전주행거리 33km(도심연비:휘발유 10.3km/ℓ, 전기 3.0km/kWh, 고속도로연비:휘발유 11.3km/ℓ, 전기 3.0km/kWh) CO₂배출량: 67g/km, 등급:2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의 차량과 국내 판매 모델은 제원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옵션은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autumn rose

햇살에 그을린 피부 위에서 그 어떤
컬러보다 빛을 발하는 로즈 골드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타미나 T 트루 브라이덜릿** 태피니의 상징인 T 로고를 간혹적으로 교차 배치한 볼드한 디자인의 브라이덜릿.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 단연을 향상화한 메탈 감성 마감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파이에 폴로 데이트 워치 모던한 디자인에 3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로 우아함을 더한 워치.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은 물론 각색 있는 룩에도 매치 가능하다. 화이트 오팔 컬러 다이얼로 순수한 감성을 더했으며,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원대. 문의 02-3479-1802

가르디에 클라시드 가르디에 브라이덜릿 과감한 스티드 모양의 오브제이 볼륨감을 극대화해 목에 포인트를 주며 기하학적임에도 착용했을 때 부드럽고 우아한 매력을 선사한다. 빙동 광장의 자갈길,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돔과 피코 장식에서 영감을 받아 파리의 역사를 그대로 재현했다. 1천4백 50만원, 문의 1568-7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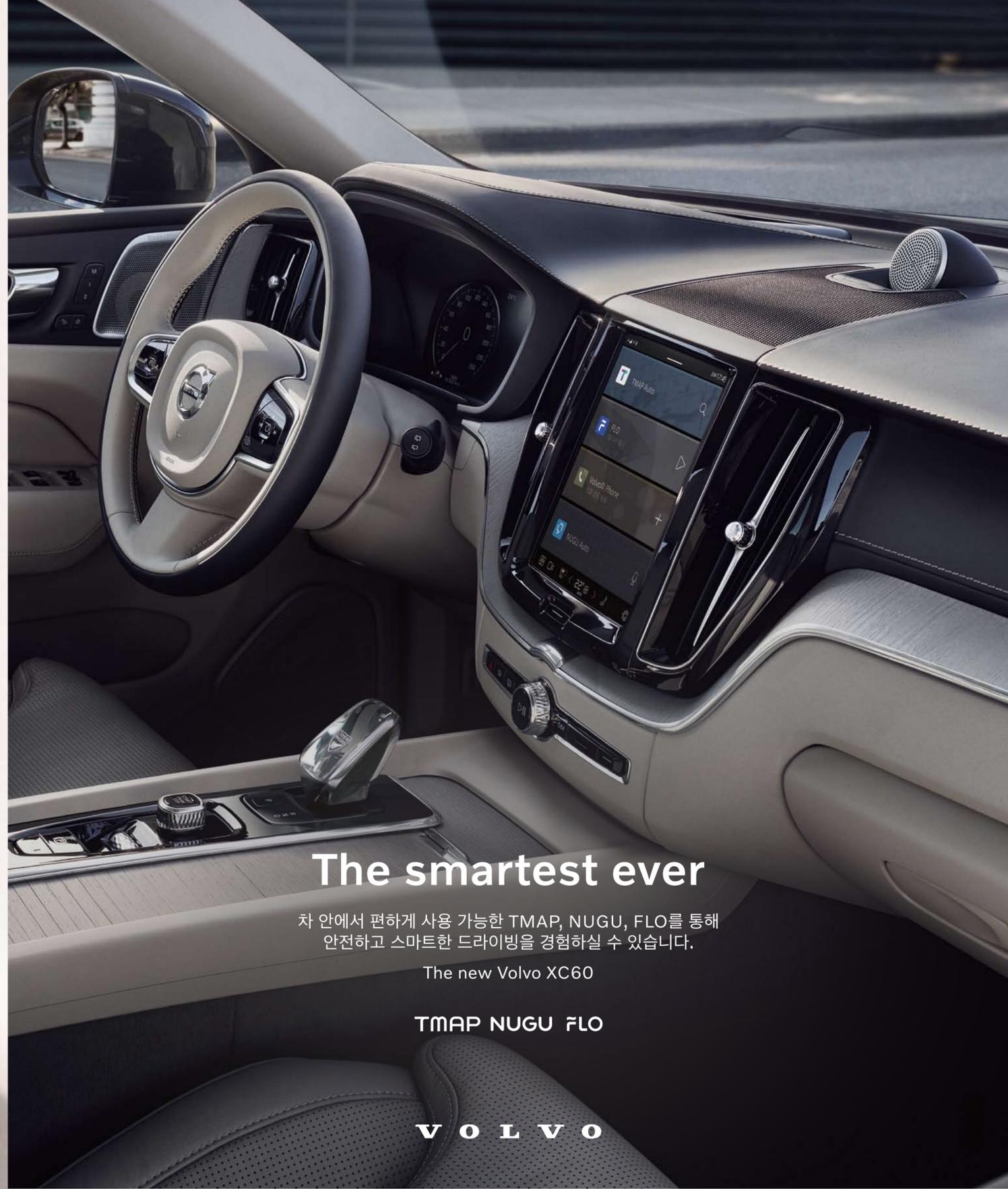
부세론 라트로 레다전트 워딩 밴드 부세론의 독보적인 우아함이 돋보이는 링.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밴드를 더해 모던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배가한다. 작탄 손가락 위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발휘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블라디 디어스 드림 로마 카리칼라 육장의 모자이크 타일 장식에서 영감을 받은 부세론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10월의 탄생석 오팔을 부드러운 밀키 핑크 컬러로 세팅한 네크리스.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글래머러스함과 우아함을 더했다. 8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소메 비 마이리브 컬렉션 브라이덜릿 골방에서 영감을 얻은 헤어-봄 모티브를 연상케 한 브라이덜릿. 로즈 골드에 13개의 브릴리언트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느낌을 준다. 1천만원대, 문의 02-2039-3854

소피드 해미 스포츠 여성스러운 30mm 18K 로즈 골드 케이스에 베젤에는 1.127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했다. 소피드 매뉴팩처에서 개발 및 제작한 셸프 워터링 메카니컬 무브먼트 09.01-C로 구동한다. 2천4백만원. 문의 02-6905-3330

반클리프 아펠 에클레리 시크니처 링 로즈 골드에 세팅한 골드 비즈를 더해 우아한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밴드를 따라 세간 반클리프 아펠 아티비스트 컬렉션이 돋보이는 링 3백만원대. 문의 1668-1906 에디터 **성정민**



The smartest ever

차 안에서 편하게 사용 가능한 TMAP, NUGU, FLO를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라이빙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The new Volvo XC60

TMAP NUGU FLO

VOLVO

서울 신사 02 515 9090 송파 02 413 0900 목동 02 2061 6789 동대문 02 2212 8855 대치 02 569 6080 서초 02 3486 2900
인천 032 858 0777 경기 일산 031 906 6789 분당 서현 031 707 2266 분당 판교 031 706 5599 수원 031 216 6777 안양 031 385 6789 의정부 031 563 7000
하남 031 795 0211 부천 032 716 6788 **경기** 구리 031 555 0070 강원 원주 033 735 2900 대전 042 628 2200 충청 천안 041 569 2900
광주 062 372 3600 전라 전주 063 275 3600 순천 061 754 7200 대구 대구 053 768 5588 **인사** 서대구 053 572 5600 울산 052 268 0900
경상 포항 054 278 7900 창원 055 714 8020 김해 055 338 8999 부산 해운대 051 714 7400 평안 051 759 1600 제주 064 712 3600
• 고객센터 1588 1777

볼보자동차 홈페이지 www.volvocars.co.kr 유튜브 [youtube.com/volvocarkorea](https://www.youtube.com/volvocarkorea) 페이스북 [facebook.com/volvocarkr](https://www.facebook.com/volvocar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volvocarkr](https://www.instagram.com/volvocarkr)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XC60 B5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900kg, 자동 8단) 복합연비:9.5km/ℓ(도심연비:8.4km/ℓ, 고속도로연비:11.1km/ℓ) CO₂배출량:180g/km, 등급:4등급. ·XC60 B6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1,935kg, 자동 8단) 복합연비:9.1km/ℓ(도심연비:8.1km/ℓ, 고속도로연비:10.7km/ℓ) CO₂배출량:189g/km, 등급:5등급. ·XC60 T8 AWD(배기량 1,969cc, 공차중량 2,155kg, 자동 8단) 복합연비(플러그인하이브리드):휘발유 10.8km/ℓ, 전기 3.0km/kWh, 1회 충전주행거리 33km(도심연비:휘발유 10.3km/ℓ, 전기 3.0km/kWh, 고속도로연비:휘발유 11.3km/ℓ, 전기 3.0km/kWh) CO₂배출량:67g/km, 등급:2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광고 이미지의 차량과 국내 판매 모델은 제형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옵션은 상위 모델에만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볼보자동차 공식 전시장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Calm Cashmere

하루만 걸어도 멋진 실루엣을 완성하는 가을 소재를 꼽으라면 단연 캐시미어다. 착용하기 예나 건보기에도 고급스럽고 단정하면서도 연출이 가능하며 보온 효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뛰어나다. 울기를 아우타웨어 없이 특 걸치기만 해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캐시미어 아너를 놓치지 말 것.

레드 컬러 그레이아센이 멋스럽고 도톰한 소재로 보온성이 뛰어난 터틀넥 티셔츠 2백40만원대 **로로피아나**, 문의 02-546-0615 브라운 컬러 캐시미어 소재에 프린지 디테일을 가미한 스카프 4백69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Elegant Tweed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 바람을 막기 위해 재킷인 트위드. 섬유 사이사이 틈을 탄탄하게 밀착시킨 파킹이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한다. 캐주얼한 룩에 트위드 재킷 하루만 걸치면 포멀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 일과 야가를 아우르는 워크레저 룩으로도 재킷이다.

그레이 색감과 골드 버튼으로 아디에나 편하게 매치 가능한 트위드 재킷 가격 미정 **셀윈드**, 문의 02-549-6631, 체크 패턴에 구찌의 시그니처인 불루, 레드 트라밍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재킷 4백20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fall into you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옷장에서 자연스레 찾게 되는 소재 빅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ensual Leather

가을 하면 레더 재킷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색다른 연출을 위해서는 레더를 활용한 아너에 주목할 것. 레더 셔츠, 팬츠 등을 잘 매치하면 멋들어진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또 레더 소재의 아너는 보온성이 뛰어나 아우타웨어만 교체해 가을부터 겨울까지 매치 가능하다.

시크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이크 레더 소재의 블랙 셔츠 1백9만원 **이시켄미앙**, 문의 02-516-3737, 비비드한 블루 컬러가 돋보여 포인트로 연출 가능한 양가죽 팬츠 가격 미정 **살바토레 파라기오**, 문의 02-3430-7854 디테일한 편칭 장식으로 여성미를 다한 숄더가죽 벨트 1백만원대 **알라리아**, 문의 02-6905-3413 **에디터 성장진**



Cool Denim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데님이지만 도톰한 데님 재킷만큼의 멋을 누릴 수 있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다. 진중부터 연출까지 다양한 컬러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버튼이나 소재의 믹스로 디테일을 준 데님 등 스타일링 선택의 폭도 넓으니 보다 더 실용적일 순 없다.

반티저한 무드를 더하는 생지 느낌의 A라인 롱스커트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데님의 푸른 컬러에 페이크 힐 버튼 디테일을 더해 포인트를 준 재킷 2백50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on the field

시원한 장타와 호쾌한 티샷을 위한 프로페셔널 캐디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옐로 컬러로 포인트를 준 일괄한 화이트 디자인과 다양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적 연도를 지닌 레더 캐디 백 4만원 **갈라웨이**, 문의 02-3218-7400, 초경량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한 2kg의 코브라 울트라라이트 스탠드 백, 아담 가지 클럼을 캐리할 수 있고, 단열 포켓을 장착해 음료를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다. 15만원. 빠른 볼 스피드와 최적인 비거리를 지원하는 코브라 리드스피드 드라이버 59만원, 코브라 리드스피드 페어웨이 우드 36만원, 코브라 리드스피드 하이브리드 31만원 **코브라클럽**, 문의 02-2136-1161, 양쪽 어깨로 균형 있게 짚 수 있는 더블 숄더 벨트를 장착하고 골프화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춘 투어용 CB12101 캐디 백 73만원, 안정적이고 정확한 샷을 선사하는 아이언 22만원, 강탄도의 368 등급 로 스피인 컨트롤을 강화하고 비거리에서 놀라운 성능을 제공하는 멀티클러 울 뉴 D1 BT-2001 골프 볼 1다즈 12pcs 9만3천원 **콜리온**, 문의 02-2140-1800, 5구 포켓 타입으로 커스텀이제이션을 위한 탈착식 프론트 포켓을 장착했다. X자형 어깨끈과 일자형 어깨 스트랩을 함께 제공하는 TRA 스탠드 백 75만원 **제이린드버그**, 문의 02-547-2229, 클럼을 넣어 보관하는 톱 부분에 극세사 소재를 사용해 클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체 공학적 운반을 위한 특허 받은 평형 시스템을 적용했다. 항공 인감으로 위생적이고, 유리 포켓 내부에는 귀중품을 보관하기 위한 잠금 포켓과 병뚜개 전용 타월링, 우산꽂이까지 갖췄다. 플라이 어 3 골프 스탠드 백 59만8천원 **베셀클럽**, 문의 080-001-1270 **에디터 이루이**

이시켄미앙

이시켄미앙

블루 컬러 코트 5백10만원,
그린 컬러 GG 로고 팬츠 2백만원,
블랙 & 화이트 컬러 모카신
1백15만원, 실버 네크라스
가격 미정, 마디엄 톨렌들백
가격 미정 모두 구비, 그린 컬러 터틀넥
가격 미정 **살비토레 페라기오**.



Bag Lady

심플한 디자인과 클래식한 분위기로 돌아온 뉴 시즌, 뉴 백.
photographed by kim jae hoon

블루 컬러 모에어 카디건,
프린트 셔츠, 라벤더 컬러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살비토레 페라기오**,
커피 컬러 소재 모자이크 백
9백72만원 **에르메스**.



캐시미어 소재 폴오버, 실크 자카드
소재 셔츠, 울 드림 소재 팬츠,
메탈 소재 네크리스, 링 스킨
미셀레니우스 백 모두 가격 미정 사됨.



버건디 컬러 레더 코트 가격 미정,
살버 스카르트 80만원, 패딩 백 2백만원
모두 2 품클러비르 1952, 롱부츠
가격 미정 드리스 반 노튼, 울 자카드
글러브 가격 미정 프라다.



프린트 코트 가격 미정 드레스 반 노트,
패널드 미디 드레스 599,800원, 아이링
가격 미정 모두 알렉산더 맥퀸,
화이트 컬러 핏프스 가격 미정
살비토레 페라기모, 카프 레디 소재 비유리
사벨 백 399,800원 조이 그라이스,



멀티컬러 프린트 톱
399,800원, 옐로 컬러 레디
판츠 399,800원, 카프 레디
소재 고아 백 499,800원
모두 로아베,

퍼플 칼라 니트 드레스, 샌들,
트라이앵글 숄더 벨트, 이어링,
링, 카프 레더 소재 마운트백,
미니 조디백 모두 가격 미정
본태가 배너.



플리메스터 소재 페이크 퍼
원피스 가격 미정 Ports 1961.
라일락 컬러 롱 슬리브 드레스,
이어링, 카프 레더 소재 4G 체인백
모두 가격 미정 지형시.

레이 김우준
메이킹업 문자원
모델 김사연(제퍼 모델 매니저먼트)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사철티 080-200-2700
보태가 배너 02-3438-7601
살바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구찌 02-3452-1921
지형시 02-546-2790
로아베 02-6905-3470
몽클레르 02-514-0900
프라다 02-3218-5331
드리스 반 노튼 1644-4490
Ports 1961 1961 Ports1961.com
조이그라이슨 080-202-2002



페이퍼 플라워 프린트로 디테일을
더한 레디드립 니트 드레스,
트레드 힐 첼시 부츠, 소프트
아이보리 컬러 커브 백
모두 알렉산더 맥퀸.

Full Bloom

정교한 테일러링과 섬세한 소재로
구현한 완벽한 실루엣에서 풍기는 절제된
카리스마. 알렉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버튼(Sarah Burton)은 2021 F/W 시즌,
시대상을 고찰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희망하며 치유의
힘을 지닌 물과 아내모네 꽃에 주목했다. 갓 피어난 꽃처럼
풍성하고 화려한 매력으로 우아하고 강인한 여성상을
전하는 데 엠베서더 전지현이 함께했다.
photographed by **ahn joo young**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아쉬움에 꽃을 프린트한 화이트
저지 티셔츠와 드롭트 포켓
다테입 블랙 폴리 피유 소재
스커트, 루스블러드 컬러
커브 백 모두 알렉산더 맥퀸.

헤어 백홍권
메이크업 최사은
스타일리스트 황정원
아트 디렉터 최지영

white acts

취향에 따라 골라 신는 재미! 산뜻하고 근사한 스타일을 완성해줄 화이트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힐 탭과 아웃솔을 톤온톤으로 매치해 차별한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프랭키 스니커즈 가격 미정 **클로에**, 문의 02-3444-0077, 캔버스 소재에 에너지를 더하는 모노그램 패턴을 입힌 워크 앤 플레이 스니커즈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견고한 송아지가죽에 특유의 클래식한 마무리를 더한 토즈 현대 스카임 컬렉션 탭스 스니커즈 7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바깥디 컬러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로프트 스니커즈 73만원 **발리**, 문의 031-5170-1159, 특유의 4G 패턴으로 상징성을 살린 사티 로우 스니커즈 84만원 **자카르타**, 문의 02-546-2790, 심플하고 담백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LV 스쿼드 스니커즈 1백만 원대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에디터 이주이**



OXASITE 박재영

eternal elegance

우아함에 대한 여성의 무한한 욕망을 자극하는 로저 비비에 클래식. 새로운 백, 비브 쇼크로 당신 안에 내재되어 있던 변함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을 자극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아함을 향한 여성의 욕망과 열망을 자극하는 백 & 슈즈 디자인으로 늘 이슈가 되는 로저 비비에에서 또 다른 욕망을 자극할 뉴 백, 비브 쇼크를 출시했다. 디자인이 개런도 벨로라는 매혹을 상징하는 다양한 코드를 이 새로운 백에 담아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매력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긴결한 스커어 형태와 포인트 장식으로 이뤄진 이 백은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형성해 데이 백뿐 아니라 이브닝 백으로도 연출 가능하다. 묵신하고 부드러운 패디드 송아지가죽으로 만들어 환상적인 촉감을 자랑하며, 로저 비비에 슈즈의 시그니처 바를 중 하나인 비브 쇼크를 그대로 백 포인트 장식에 응용해 특유의 시그니처 룩을 완성한다. 백 양쪽은 아코디언 형태의 주름으로 디자인해 수납공간이 여유로움, 포켓에는 로저 비비에 로고를 엠보싱해 포인트를 주었다. 스트랩은 송아지에서 사용하는 해네스에서 영감을 받아 정교한 가죽 스타일이 특징이며, 같이 조절 범위가 다양해 활용도가 높다. 이처럼 개런도 벨라는 무수 로저 비비에의 아이코닉한 쇼크 컬러에 대한 친숙와 한층의 의미로 비브 쇼크 백을 디자인하면서 여성의 매혹적인 이미지를 백에 담아내는 것과 동시에 현대 여성을 위한 실용적인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 앞으로 오랫동안 로저 비비에의 클래식 백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템이다. 3백38만원. 문의 02-6906-3370 **에디터 상영민**



● sponsored by ROGER VIVIER

Jewel lover

하이 주얼리의 아이덴티티를 담거나 재해석한 향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그랜드 라세디 라 로니 I EDP** 경쾌한 시트러스와 스파이시한 핑크 페퍼론으로 사적해 아이리스와 오리스 플라워의 플로럴 향이 이어지며 고독적인 파슬리와 가죽 향으로 마무리된다. 중성적인 매력과 신비롭게 반짝이는 보석의 느낌을 표현했다. 100ml 41만원, 문의 080-800-8809

타파니 오 드 파퐁 타파니 다이아몬드의 아이코닉한 커팅에서 영감을 받은 투명한 유리병으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했다. 고급 향수에만 사용되는 귀한 원료인 스파클링 플로럴 마스크를 현대적으로 표현해 관능적인 동시에 순수 다이아몬드에서 느껴지는 깨끗함과 여성스러움을 담았다. 75ml 16만9천원, 문의 080-850-0708

까르띠에 펜더 오 드 파퐁 까르띠에의 시그처 문양인 팬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으로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에 관능적인 마스크를 더해 미치고 감성과 동등한 에센스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매혹적인 느낌을 담았다. 보틀 내부에는 까르띠에만의 팬더 모습이 새겨져 있다. 75ml 8만3천5백원, 문의 1566-7277

부세론 글락시움 워터 데 베스 EDP 부세론에서는 귀한 보석을 수집하는 보석 탐험가들이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감정과 색채를 향으로 표현한 향수를 출시하고 있다. 그중 베네치아에서 영감을 받은 향으로 이탈리아 가죽 공예에서 느낀 관능적이고 달콤한 가죽 향을 표현했다. 보틀 neck 부분의 골드 링은 부세론의 다들 가드론 장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125ml 25만2천원, 문의 080-800-8809

쇼파드 파퐁 리브 쇼파드 화려한 레드 카펫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로 레드 카펫에 섰을 때 느껴지는 영예와 짜릿한 전율을 향으로 표현했다. 불가리안 로즈 에센셜 오일을 포함한 진귀한 여섯 가지 최상급 로즈 에센스를 메인 원료로 사용하여 풍부한 장미 향을 느낄 수 있다. 정열과 사랑을 상징하는 레드 보틀도 매혹적이다. 100ml 15만9천원, 문의 080-990-8989

빈클리프 아벨 글락시움 레브 달랑 EDP 가장 고급 향료라 여겨지는 알랑알랑에 미국적인 느낌을 풍기는 카르다물, 시프란을 첨가해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을 완성했다. 세련된 블랙 스퀘어 보틀과 골드 명판에 홀리크림 인 쇄한 빈클리프 아벨 모노그램까지, 진귀한 보석의 감성을 그대로 담았다. 125ml 35만원, 문의 080-800-8809
에디터 **상장민**

(우부터) **타파니 T1 화이트 하프 다이아몬드 한지드 뱅글** 타파니 시그처 T 로고를 형상화한 18K 화이트 골드 뱅글에 파베 다이아몬드 장식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까르띠에 펜더 오 드 파퐁** 타파니 시그처 펜더가 실용한 링 끝에 자리한 18K 옐로 골드 에 오닉스, 차보라이트 2개를 세팅한 뱅글 9만65만원, 문의 1566-7277 **부세론 색채링 카닐리언 6 링** 용기와 행운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의 1.267캐럿 카닐리언으로 포인트를 준 옐로 골드 링 2만1천원, 문의 02-3213-2246 **쇼파드 해피러브 네그리스 쇼파드**의 상징인 하트 모티브와 아이코닉한 무빙 다이아몬드 조화를 이루는 네그리스 5캐37만원, 문의 02-6905-3390 **빈클리프 아벨 베를리 컬러 링** 상세한 골드 비즈 링에 강렬한 색감의 컬러 원석으로 포인트를 준 링 모두 3만1천원, 문의 1668-1906

아이즈엔트 뷰티

radiance treatment

피부 필수 기능을 재건하고, 건강한 빛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피부를 만든다. 바닐라-플라니폴리아의 유효 성분을 고스란히 담아낸 안티에이징 집중 스페셜 홈스킨케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진귀한 성분으로 피어나는 궁극의 광채

샤넬 뷰티의 핵심이 되는 수블리마지 컬렉션은 이 시대 여자들이 꿈꾸는 탄탄하고 우아한 광채 피부를 실현하는 최상의 선택임이 분명하다. 강력한 항산화 효능으로 차열이 다른 피부결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라인의 핵심은 바닐라-플라니폴리아 성분이다. 마다가스카르의 그린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이 성분은 샤넬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성분으로, 바닐라-플라니폴리아 고투리에서 추출한 워터 성분이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자가 회복 프로세스를 강화해 종합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샤넬 뷰티는 보석 같은 성분인 바닐라-플라니폴리아를 주축으로 신제품 수블리마지 르 바뮴, 수블리마지 코르 데 데콜레를 새롭게 선보이며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먼저 수블리마지 르 바뮴은 페이스 밤 타입으로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케어하는 데 집중한다. 하일루론산과 시아버데, 식물성 오일과 글리세린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목직함 밤 타입인 텍스처가 피부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녹아들어 편안하면서도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피부 광채와 균일한 톤, 피부 건강 개선을 이루며 자에서도 편안하고 탁월한 선프 케어를 실현하게 해준다. 보드라운 벨벳 텍스처의 보디 & 넥 크림 수블리마지 코르 데 데콜레는 놀라운 만큼 신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으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에멀션 타입의 포플라에는 미세한 버블 형태의 고농축 버터와 오일 성분이 담겨 있는데, 마이크로 필 성분이 바르는 즉시 녹아들어 신성하고 차열이 다른 피링 효과와 건강한 빛을 선사한다. 두 가지 라인업으로 즐기는 홈 케어 루틴에 수블리마지 컬렉션을 대표하는 수블리마지 레상스 폼다맨탈을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었다. 수블리마지 레상스 폼다맨탈에만 사용하는 솔라디고 추출물이 피부의 힘을 강화하고 활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에디터 **이주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피부를 보호하는
고영양 페이스 밤 수블리마지 르 바뮴
50g 50만8천원,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보디 크림 수블리마지 코르 데 데콜레 150g
39만1천원 모두 샤넬 뷰티,
080-332-2700, chanel.com

© sponsored by CHANEL

stick to lips

시즌이 바뀔 때 꼭 하나 사야 한다면 단연 새 컬러, 새 텍스처로 출시되는 립스틱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디올 뷰티 루즈 디올 꾸뛰르 립밤 #720 이온 매트 기존 루즈 디올 립밤이 컬러를 입고 돌아왔다. 루즈 디올의 첫 컬러 립밤으로 립스틱과 동일하게 세틴, 매트, 벨벳 등 세 가지 텍스처와 12가지 컬러로 선보여 다양하다. 특히 매트 제품은 립밤인 빌라도 촉촉함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진한 발색을 경험할 수 있으며, 립 블러 효과까지 연출 가능하다. 3.5g 4만8천원. 문의 080-342-9500

맥 라스타글렌스 립스틱 557 플라스티드 촉촉하고 편안한 텍스처가 매력적인 맥의 스타디셀러, 총알 립스틱이라 불리는 라스타 립스틱의 업그레이드 버전, 선명한 발색은 물론 시아버와 세라 미이드 등 입술 케어 성분을 함유한 스페셜 오일 플렌드 텍스처로 건조한 가을 입술에 촉촉함과 매력적인 반짝임을 더해 볼륨감을 준다. 3g 3만1천원. 문의 02-6971-3291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립 매트 립 무스 931 3색 입술에 더욱 풍부한 컬러를 선사하는 라커 타입으로 무스처럼 가볍고 크리미한 재질이 입술을 편안하게 한다. 하얗게 발색을 함유해 건조한 입술을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하며 플레시를 풀리며 성분으로 12시간 이상의 높은 지속력을 자랑한다.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립 제품을 찾았다면 추천. 9ml 4만1천원. 문의 02-6971-3212

샤넬 뷰티 루즈 입쉬르 라코 85 코랄 알타비르 울가을 트렌드에 맞는 강렬하고 진한 레드 컬러로, 한번의 터치 만으로도 선명한 발색을 자랑한다. 매트와 글로시의 중간 정도 반짝임을 선사하는 세틴 텍스처가 고급스럽고 세련된 룩을 완성한다. 부드럽게 발리며 촉촉하게 마무리되어 입술에 편안함을 선사한다. 5.5ml 4만8천원. 문의 080-332-2700

꾸뛰르 루즈 드 보네 브리앙 립스틱 0112 섀리 소프트 허니 립밤과 립스틱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는 하이브리드 립스틱. 발색이 선명한 것은 물론, 입술에 촉촉한 수분감을 선사한다. 마지 립스틱 위에 입 오일을 한번 더 덧발라 더 오일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지만, 부드럽지 않은 반짝임으로 입술을 볼륨감 있게 연출한다. 1.8g 5만2천원. 문의 02-3452-1921

골레드르 보네 립스틱 5 카멜리아 글로브 컬러 디메트 벤자민 푸카와 협업해 탄생시킨 새로운 컬러로 얼굴을 화사해 보이도록 하면서도 은은하게 표현되는 컬러감이 일품이다. 썬포트 및 오일 성분으로 부드럽게 발려 촉촉하게 마무리되면서도 입술에 밀착해 마지 비르지 않는 듯한 가벼움을 선사한다. 4g 7만원. 문의 080-664-7700

나스 퍼워멧 립 피크먼트 매트 기어 바르는 순간 매트하게 마무리되어 오랜 지속력을 자랑하는 리워드 립. 선명한 컬러가 특징인 미세한 피크먼트가 마지 입술에 문신을 한 듯 착 붙는 밀착력과 선명한 발색을 선사한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딸린 장미 컬러가 매력적이다. 5.5ml 3만7천원. 문의 02-6906-3747 에디터 **성정민**

이 스타일은 매 시즌



Start the Game

수십 년 넘게 영화 제작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해밀턴 워치. 이번에는 또 다른 콘텐츠인 게임의 세계에 접속한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게임 워치. 역사상 최초로 파 크라이® 6 필드 게임에 등장하는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워치를 소개한다.

최초의 인 게임 워치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가 개발해 출시한 파 크라이® 6는 1인칭 슈팅 비디오 게임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가상의 섬 '야라'의 무자비한 독재자인 톱스 티요와 싸우는 게임이다. 게임 플레이어들은 군인 다니 로하스 역할을 맡아 독재자의 통치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투에 뛰어들며, 위험한 케릴라 미션을 완수하면 맞춤형 시계를 선물 받게 된다. 이때 게임에 등장하는 타이피스가 바로 해밀턴 카키 필드다. 이 정교한 해밀턴 워치는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들에게 수비와 방어를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어 위험한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 이템 역할을 한다. 게임에 등장하는 워치는 갈색 가죽 나토 스트랩과 브라운 컬러의 누백 가죽 스트랩까지, 교체 가능한 2개의 스트랩 디자인으로 밀리터리한 감성을 담았으며, 마치 현실과 같이 정교하게 제작된 3D 가상 캐릭터들의 손목과 잘 어울려 더 리얼한 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sponsored by HAMILTON



현실에서 만나는 리얼 카키 필드

게임 속에서 주인공이자 플레이어들이 착용하는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을 현실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게임에 등장하는 워치의 최첨단 성능과 균형 시계의 감성을 그대로 담아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티타늄 케이스 디테일은 게임 속 워치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현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중심부가 매트한 블랙 비늘 다이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역사상 최초로 게임에 등장하는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파 크라이® 6 리미티드 에디션. 2-4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파 크라이® 6 리미티드 에디션. 5 현실에서 구입 가능한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파 크라이® 6 리미티드 에디션. 6 해밀턴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파 크라이® 6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입하면 어보의 스트랩 1개와 리더 케이스를 추가 증정한다.

게임 내임인 파 크라이® 6의 로고에서 따온 마커 넘버 6가 돋보이게 디자인했다. 레드 컬러 초침은 게임의 컬러를 연상시키며 게임 플레이어가 속한 야라 게릴라 부대에 대한 경의를 상징한다. 갈색 가죽으로 이루어진 나토 스트랩에 교체 가능한 브라운 컬러의 누백 가죽 스트랩을 제공하며, 스켈레톤 로터를 장착한 80시간 파워 리저브의 H-10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구동된다. 이처럼 게임 속 워치를 실제로 착용하며 게임을 하면서 느낀 즐거움을 현실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구현해낸 해밀턴의 또 다른 혁신,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파 크라이® 6 리미티드 에디션. 이 혁신적인 워치는 2021년 10월 7일 전 세계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압구정에서 팝업 전사를 진행한다. 실제 게임에 등장한 카키 필드 티타늄 오토매틱 워치를 착용해볼 수 있는 건 물론, 게임 속 주인공인 다니 로하스가 되어 다양한 미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환절기로 저하된 피부 컨디션을 위한 스페셜 케어. photographed by park kun w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나스 에어 매트 립 컬러 플레시 비타 나스의 인기 컬러 네 가지가 에어 매트 립 컬러로 출시되었다. 은은한 장맛빛 컬러인 에어 매트 제안을 더해 입술에 더 착감하는 느낌. 두세 번 레이어링해도 공기처럼 가벼운 피우다만한 마무리감을 에어 매트를 하지 않은 듯하며, 마스크에 잘 묻어나지 않는다. 7.5ml 3만9천원. 문의 02-6905-3747_by 에디터 성정민

선크림 **에센셜 탭레트 스킨 56호 클리어 레드** 고농축 세럼 덕분에 입술에 생기를 더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호막까지 생성해 촉촉하고 생기 있는 매끈한 입술로 케어해준다. 특히 56호 클리어 레드에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레드 컬러와 내추럴 메이 크업에도 인성향이다. 3g 4만원.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장리윤

존버토스 XX 안티노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일렉트릭 기타에서 영감을 얻은 향. 레몬과 페퍼민트가 어우러진 싱그러움과 특유 휘는 향을 중심으로 제논과 양귀비, 카리브의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향을 더해 상쾌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발산한다. 야에 페퍼민트 프로스티드 마스크가 신선하고 미묘한 여운을 남긴다. 125ml 12만1천원. 문의 02-3443-1805_by 에디터 이주이

로아비 데일리 리프레이시 안티-헤어 로스 샴푸 무엇보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부드러운 머릿결로 기부주는 팽팽 타지는 수분감이 일품이다. 지성 타입이 아닌 신경 쓰이는 과도한 유분감도 알뜰하게 해결해준다. 페퍼민트와 로즈마리를 조합한 상쾌한 향 기척에 이왕 샴푸 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285ml 3만9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이주이

바비리 얼핏 얼핏 클로우 쿠션 #10 페어 필 밀착력, 지속력, 수분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인능 아이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피부 컬러와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게다가 향산화 효능으로 잘 알려진 백차 추출물과 피부를 보호하는 제라늄 추출물 등 피부에 필요한 성분도 함유해, 스킨케어까지 아우른다. 14g 8만9천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이주이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퍼밍 바디로션 딱 이만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 땀이 나면, 허벅지, 팔꿈치, 무릎 등 몸의 간지럼. 스무트 이펙트와 헤어리시 씨 오일을 함유하고 부채산분말 뿌리와 자이언아미노산 뿌리 추출물을 더해 이 제품은 바쁜 아침 샤워 후 비눗 때 물수가 빨라서 좋고, 무엇보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듯한 느낌과 다. 자극적이지 않은 향도 마음에 든다. 150ml 23만5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장리윤

바이레드 몰비이 노이즈 EDP 바이레드 창립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벤 고펜은 몰비이 향수에 있는 향과 외의 만남과 추악을 이 향수에 담았다. 인센스의 향과 타오르는 장미의 지옥향 연기, 갈기의 커미 커트, 불협화음을 담은 시몬스케이프 등 예측하지 못한 어둠은 몰비이 가리가 그대로 연장된다. 처음 향을 맡을 때부터 코를 찌르는 듯 톡 쏘는 독특한 향은 오리엔탈적 무드와 신비로운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100ml 33만원. 문의 02-3479-1688_by 에디터 성정민

클레르 보보에 사-라티네 & 데콜레 크림 목 주름은 물론 데콜레에 일명 '목갈이' 주름이 있어 걱정되었던 에프비의 마음을 쏙 빼앗은 제품. 피부 탄력은 물론 다년경까지 케어해주는데, 동행된 에센셜 블로우 마스킹이 신의 손이다. 피부에 닿는 즉시 적절한 온도로 바뀌며, 디자인 역시 목과 데콜레 윤곽을 따라 부드럽게 섀프 케어할 수 있도록 접고 움직이기 편하게 되어 있다. 75ml 49만8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장리윤

자형스 뷰티 르 스와 노의 크림 레제르 자형스 뷰티의 프리미엄 스킨케어 라인인 크림으로 해당 에-피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고기능성 향에서부터 시원한 바다가 느껴진다. 건조한 가을, 겨울에도 끈적이는 텍스처의 크림을 가려야 따라 부드럽게 스며들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포플라가 마음에 들었다. 피부의 알약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세라믹 스페큘러까지 갖추어 앞으로 자주 손이 갈 듯하다. 50ml 44만8천원. 문의 080-801-9500_by 에디터 성정민

담티르 그램 뷰어 컬렉션 파리 간달 골동품 가게에서 풍겨 나오는 오래된 목재의 향에 고서적의 우디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을 더했다. 바디 뷰어가 들어선 강변에서 의 산책이 연상되는데, 지금은 쉽게 가지 못하는 파리의 정서를 담아서 더 애절한 느낌이다. 시원한 바닐라 부는 가을 저녁, 조용한 음악과 함께 즐기기에 좋은 은은한 향이다. 190g 13만2천원. 문의 02-3479-6049_by 에디터 장리윤

겔랑 아베이 로얄 어드밴스드 유스 워터 오일 피부에 건강한 힘을 부여하는 다섯 가지 발효 성분은 한 방에 가득 담았다. 유무피부에 함유된 펩티드와 오일 비즈가 피부에 닿는 순간 활성화되어 가장 신선한 상태로 흡수되면서 피부를 한껏 유연하게 기부준다. 달콤하고 상쾌한 향도 만족스럽다. 50ml 19만8천원. 문의 080-343-9500_by 에디터 이주이

다들 뷰티 캠프 토탈 슈피 포텐트 세럼 파운데이션 나이가 들수록 파운데이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진다. 높은 커버리보다 자연스러운 톤 보정과 촉촉한 발림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듯. 이 제품은 들뜸 없이 촉촉하게 발리는 것은 물론, 광채 파운데이션이라는 별명까지 특화된 빛나는 기부주고 딱 세 살 어린 보이는 은은한 빛을 남긴다. 30ml 10만5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성정민

동인비 모이스처 클렌징 오일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엔 순하고 촉촉한 클렌징이 해답이다. 홍상 오일을 함유한 이 제품은 노폐물과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은 물론 모공의 블랙헤드까지 알뜰하게 케어해준다. 오일 특유의 무거운 느낌을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세안 후에도 멍김없이 촉촉하다. 200ml 가격 미정. 문의 080-710-2304_by 에디터 이주이



SHOWROOM

BEAUTY

스외로브스키 칼렉션 투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 오버니 앵글버트가 선보이는 두 번째 칼렉션인 칼렉션 투는 9월부터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바우하우스 등 현대미술의 디자인 미학과 클래식 풍격화 속 자연의 모습 등 오스트리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1522-9065

샤넬 뷰티 수블리마지 코르 데 데콜레 본격적으로 건조해지는 가을철, 샴에서 수블리마지 라인 최초의 보디 크림을 출시했다. 바닐라 플라넬리아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에 중합적인 인티에이징과 향산화 효능을 선사한다. 문의 080-332-2700

디올 그랑 발 루방 다음의 그랑 발 루방(Grand Bal Ruban)은 오트 쿠튀르 작품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리본 모티브에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와 골드 나뭇잎 장식으로 다이얼을 풍성하게 채운 2가지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를 출시한다. 문의 02-3480-0104

스외로브스키 다이아니 벨 에코크 브레이슬릿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운 골드 컬러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스톤으로 프레임을 구성해 극강의 화려함이 심플함과 대비를 이루며 반짝임을 배가한다. 눈부신 가을 햇살과 잘 어울리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문의 02-3213-2141

스외로브스키 칼렉션 투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 오버니 앵글버트가 선보이는 두 번째 칼렉션인 칼렉션 투는 9월부터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바우하우스 등 현대미술의 디자인 미학과 클래식 풍격화 속 자연의 모습 등 오스트리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1522-9065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32 워치 가을을 한층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핑크 다이얼 워치를 선보인다. 아담한 지름 32mm 다이얼을 장착하고 내부 인텍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슈퍼 쿼츠 크로노미터인 브라이틀링 77로 작동하며, 수심 100m 방수 기능까지 갖춰 데일리 워치로 적합하다. 문의 02-3448-1230

론진 그녀의 손목 위 모데이즈 남성용 모델에만 적용했던 문패이즈 디스플레이를 스포츠용 모델에 적용했다. 다이얼 지름은 34mm로 유틸리티 여성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스트랩과 다이얼 스타일이

디올 그랑 발 루방 다음의 그랑 발 루방(Grand Bal Ruban)은 오트 쿠튀르 작품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리본 모티브에 스노 세팅 다이아몬드와 골드 나뭇잎 장식으로 다이얼을 풍성하게 채운 2가지 리미티드 에디션 워치를 출시한다. 문의 02-3480-0104

스외로브스키 다이아니 벨 에코크 브레이슬릿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운 골드 컬러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스톤으로 프레임을 구성해 극강의 화려함이 심플함과 대비를 이루며 반짝임을 배가한다. 눈부신 가을 햇살과 잘 어울리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문의 02-3213-2141

스외로브스키 칼렉션 투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 오버니 앵글버트가 선보이는 두 번째 칼렉션인 칼렉션 투는 9월부터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바우하우스 등 현대미술의 디자인 미학과 클래식 풍격화 속 자연의 모습 등 오스트리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1522-9065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32 워치 가을을 한층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핑크 다이얼 워치를 선보인다. 아담한 지름 32mm 다이얼을 장착하고 내부 인텍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슈퍼 쿼츠 크로노미터인 브라이틀링 77로 작동하며, 수심 100m 방수 기능까지 갖춰 데일리 워치로 적합하다. 문의 02-3448-1230

론진 그녀의 손목 위 모데이즈 남성용 모델에만 적용했던 문패이즈 디스플레이를 스포츠용 모델에 적용했다. 다이얼 지름은 34mm로 유틸리티 여성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스트랩과 다이얼 스타일이

반클리프 아펠 리브 아펠이 갤러리아 부티크를 확장해 재오픈했다. 새로운 장소를 기념하며 꽃과 식물에서 영감을 받은 에종의 패턴리모넬 작품을 최초이자 단독으로 선보이는 것 과 동시에 아티스틱 패턴리모넬 공개했다. 문의 1668-1906

스외로브스키 다이아니 벨 에코크 브레이슬릿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운 골드 컬러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스톤으로 프레임을 구성해 극강의 화려함이 심플함과 대비를 이루며 반짝임을 배가한다. 눈부신 가을 햇살과 잘 어울리는 포인트 아이템으로 손색없다. 문의 02-3213-2141

스외로브스키 칼렉션 투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지 오버니 앵글버트가 선보이는 두 번째 칼렉션인 칼렉션 투는 9월부터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했다. 바우하우스 등 현대미술의 디자인 미학과 클래식 풍격화 속 자연의 모습 등 오스트리아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문의 1522-9065

브라이틀링 크로노맷 32 워치 가을을 한층 사랑스럽게 만들어줄 핑크 다이얼 워치를 선보인다. 아담한 지름 32mm 다이얼을 장착하고 내부 인텍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슈퍼 쿼츠 크로노미터인 브라이틀링 77로 작동하며, 수심 100m 방수 기능까지 갖춰 데일리 워치로 적합하다. 문의 02-3448-1230

론진 그녀의 손목 위 모데이즈 남성용 모델에만 적용했던 문패이즈 디스플레이를 스포츠용 모델에 적용했다. 다이얼 지름은 34mm로 유틸리티 여성스러움을 놓치지 않았다. 스트랩과 다이얼 스타일이

JEWEL & WATCH

로로피아나 퍼스날라이제이션 창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맞춤 제작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앞으로 로로피아나 매장으로 확대할 서비스를 미리 선보였다. 40여 개의 상의 퍼스날 컬러와 소재, 디테일을 직접 선택해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문의 02-546-0615

로로피아나

로저 비비에 워치비트 1990년대 스키에이트 슈즈와 캔버스 소재의 테스 슈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걸작인 스니커즈에 굽은 캄벳 슈즈를 결합해 탄생시킨 슈즈로,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문의 02-6905-3370

로저 비비에

브리오니 리뉴얼 오픈 브리오니 갤러리아 부티크가 글로벌 부티크와 동일한 콘셉트를 반영해 리뉴얼 오픈했다. 부티크에서는 이를 기념해 앰배서더인 브라드 피트와 캄베라에이션에 완성한 캄벳 컬렉션은 만날 수 있다. 문의 02-516-9686

브리오니

에르메스 가을-겨울 오브제 프레젠테이션 매종 에르메스

에르메스

프리카 2022 S/S 여성용 패션쇼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미우치아 프리카와 라프 시몬스는 2022 봄/여름 쇼를 밀라노와 상하이에서 동시에 열었다. 무대 위 스크린을 통해 두 쇼가 현실과 가상 현실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스토리를 이뤘다. 문의 02-3218-5331

프리카

파비어나 필로피 2021 F/W 파비어나 필로피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해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문의 02-6905-3626

파비어나 필로피

호간

샤비트레 페라기오

FASHION



SWISS
PERFECTION
MONTREUX
CELLULAR
PERFECT
RS-28

SWISS
PERFECTION
MONTREUX

The True Swiss
Cellular Skincare Active Irida®
www.swissperfection.com